익산시, 예산확보 '잰걸음'

2차 증액심의 본격… 지휘부, 연일 중앙부처 방문
포스트코로나 대응사업 · 환경개선사업 집중 설득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연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예산 T/F팀 단장인 유희숙 부시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사업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기재부의 1차 삭감심의가 마무리되고 2차 증액심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서 중앙부처를 통한 마지막 증액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희숙 부시장은 이날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새만금과 산업단지를 잇는 물류허브가 될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이어서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찾아 비대면 그린뉴딜분야의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설명했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의 면담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의 필요성과 익산시가 신종 전염병 연구의 최적합지임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수질환경의 원천적 개선을 위한 △왕궁현업 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폐석산 불법폐기물 제거를 위한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희숙 부시장은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로 국가예산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지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미래 익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필코 사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신현승 신임 부시장이 신속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안 파악에 돌입했다.

군산시 신현승 신임 부시장, 현안 파악 돌입

군산시 신현승 신임 부시장이 신속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안 파악에 돌입했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신 부시장은 부임 직후 업무보고를 통해 부시장 이취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담당관, 경제항만혁신국, 보건소 등 현안 쟁점 사항이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재 군산시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 대응 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군산시탕상품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등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도 파악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현승 부시장은 "코로나19와 고용·산업위기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정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언제든 상호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 협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거점
귀농 귀촌 활성화 협력키로

익산시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과 7일 익산시청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과 7일 익산시청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함열읍에 조성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지원하고,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의 모집과 추천 △은퇴자의 체류형 주거공간 및 교육 제공 △은퇴자의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 등이다. 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6세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참여한 은퇴 입주자들은 8월부터 5개월간 농촌 체험 및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 입주는 익산시 외에 주소지를 둔 은퇴자 부부에 한한다. 입주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개인 텃밭에서 농업 체험을 하는 한편, 지역탐방과 일손 돕기에도 참여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는 단초가 되길 바라며 이들이 훗날 익산에 정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은 "앞으로 익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공공시설 단계적 개방

주요 관광시설 11일부터… 탁구장 · 복지시설 등 추후 결정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공공시설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수준이 낮은 시설부터 개방할 방침이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6일부터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을 시작했다.

게이트볼장과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공원 체육시설 등 실외 체육시설도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탈의실과 샤워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개방하지 않는다.

왕도역사관과 보석박물관, 근대역사관, 교도소세트장 등 지역의 주요 관광시설 7곳은 오는 11일부터 개방되며 익산 예술의전당의 각종 공연도 11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주민자치센터와 여성회관에서 실시되는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일부 개강되며 시립도서관은 같은 날부터 도서 대출과 반납만 허용된다.

배드민턴장과 헬스장, 익산종합운동장 실내족구장, 배산 실내게이트볼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는 14일부터 운영된다. 다만 탈의실과 샤워시설은 운영되지 않는다.

탁구장 등 밀집도가 높은 나머지 체육시설과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개방 후에도 전담요원 배치와 시설 방역 관리 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장기간 고립과 저조한 활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외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강좌와 교육 등을 적극 발굴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김항송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 취임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소장에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근무한 김항송(55) 항공 사무관이 지난 6일 취임했다.

김항송 소장은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교관으로 제대했으며 2013년도에 산림청에 입사해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기장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기장을 거쳐 2015년도 항공사무관으로 보직을 받아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상황실 항공안전계장으로 항공안전에 기여하였으며, 산불 및 항공업무 전문가로서 항공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항송 소장은 취임사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소통과 화합하고 각 분야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가 정착이 되어 산림재해 및 항공기 운영에서 한층 더 발전하는 익산산림항공관리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사회복지시설 등 식료품 · 방역물품 지원

익산시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모인 성금 8,400여만원으로 자가격리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식료품과 방역물품을 긴급지원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식료품 300상자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822개소에 방역물품 각 1~2박스씩을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지원했다.

이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해 모아진 특별 성금 중 익산시에 배정된 3천800만원과 익산시로 지정 기탁된 성금 4,600만원으로 마련됐다.

자가격리자에게 전달된 식료품은 가정 내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물, 라면, 햇반, 참치, 햄 등 11개 식품이 담긴 종합꾸러미로써 신속한 구호를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통해 전달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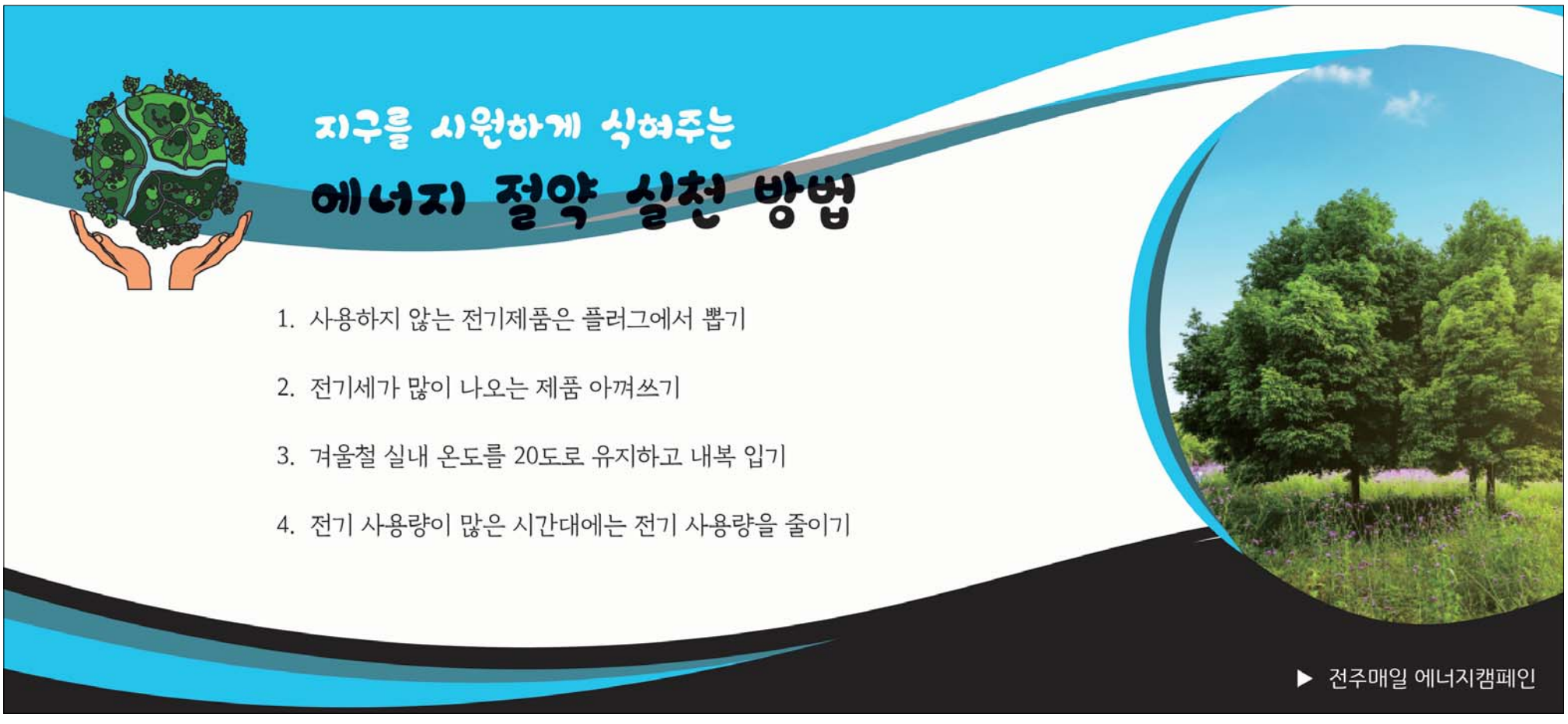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광 · 제조업 조사

군산시가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19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전국에서 실시하는 광·제조업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체 중 10인 이상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 여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군산시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사업체로 조사요원이 마스크를 착용 후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 방식,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 등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요원 전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감염 여부 및 동선 파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